

# 태고종 비대위, 도산 스님 불신임 결의

## 총무원측,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등 신청

태고종의 내용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현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 측과 이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극에 달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지난 10월 116회 중앙총회 임시회에서 도산 스님을 불신임하고 총무원장으로 종연 스님을 선출했다. 이에 도산 스님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종연 스님에 대한 '효력정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산 스님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1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자리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원장 권한대행 종연 스님, 중앙총회의장 혜공 스님, 호법원장 수열 스님이 참석했다. 이들은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현 집행부를 비판하고 조속한 종단 정상화를 위

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3원장 스님들은 "도산 스님은 독선과 독주로 작금의 파행적 종단 사태를 야기했다"면서 "도산 스님이 표방하는 개혁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 이를 공격하는 데 치우쳐 있어 이상적 자아도 치에 가깝다. 급기야 종정 스님에 대한 감금과 협박으로 허위문서까지 받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종단 사태의 치부를 정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태고종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이에 3원장도 제177회 중앙총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을 근거로 새로운 종단을 향한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3원장 스님들은 "총무원사 불법 점거와 해임된 직위로 행해지는 탈법적 총무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종도들도 비상대책위원회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 조계종 교역직·일반직 총무원 인사 잇달아

## 교육원 교육부장 진각 스님·불학연구소장 정도 스님 임명

조계종이 내년도 총무행정 변화를 위한 정기 인사를 진행했다. 교육원은 부·국장급 교역직 인사를 예고했으며, 중앙총무기관 일반직 인사도 대폭 단행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현응 스님의 교육원장 재임을 맞아 11월 25일 교역직 총무원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신임 교육부장으로 진각 스님(사진)이 임명됐으며 교육부장이었던 정도 스님이 불학연구소장으로, 연수국장이었던 진광 스님이 교육국장으로,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이었던 석중 스님이 연수국장으로서 인사 이동한다.

교육부장으로 임명되는 진각 스님은 해암 스님을 은사로 1986년에 수계(사미계)하고 해인사 승가대학과 울원에서 수학했으며, 해인사 사회국장, 월간 '해인' 편집장, 포교원 포교국장, 조계종 환경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합천 연호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불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도승 스님을 은사로 1985년에 수계(사미계)하고 동국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통도사 포교국장과 통도사승가대학 교수, 조계종 교육아사리 등을 역임했다.

차·팀장 소속 인사 이동 조계종 중앙총무기관과 산하기관 일반

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도 단행했다. 조계종은 11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014년 정기 인사를 확정했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는 차·팀장급의 인사 이동이 눈에 띄었다. 차장급에서는 김영주 사회팀장이 교육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병주 교육차장은 한국문화연구소장으로 이동한다. 이석심 총무차장과 윤영희 포교차장은 유임됐다.

팀장급에서는 조영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행정관이 총무팀장으로, 전인동 직할교구팀장이 사찰교무팀장으로, 이동선 기획실 행정관이 직할교구팀장으로 임명됐다.

기획팀장에는 윤승환 사찰교무팀장이, 사회팀장은 김용구 기획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홍보팀장에는 한승희 행정관이 승진했으며, 박정규 홍보팀장은 교육팀장으로 이동했다. 또한 중앙신도회에 파견됐던 황철기 팀장이 포교팀장으로 임명됐다.

승려복지회에는 봉은사로 파견됐던 박종학 총무실장이 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봉은사 총무실장에는 장영욱 조계종 출판사 유통사업부장이 임명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팀장에는 양원준 사회부 행정관과 김한일 법무감사팀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성동 총무부 총무팀장은 불학출판사 편집장으로 이직하며,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 추진

## 25일 교구본사주지협 회의서 밝혀... 토론 실효성은 '의문'

조계종이 2030년 미래 한국불교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규모 대중공사를 추진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1월 25일 화성 용주사에서 열린 제36차 전국교구본사주지협회의에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2030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 계획안을 보고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밝힌 계획안에 따르면 100인 대중공사는 교구본사, 중앙총회, 중앙총무기관, 원로·종진, 강원, 선원, 울원, 비구니회, 포교신도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 및 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출제자가 100~120인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장은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중앙총회의원 지홍 스님(불교광장 회장), 총무부장 정만 스님, 교구본사 주지 스님이 맡고 추진위원으로는 중앙총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중앙총무기관 부장급 교역직 인사, 중앙신도회장, 포교사단장, 대한불교청년회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 15인이 참여한다.

대중공사 운영 방식은 바람과 희망, 질문을 통해 대중의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며, 내년부터 총 10회 내외로 열릴 예정이다.

대중공사의 시작은 오는 12월 23일 생명평화 1000일 정진 회향식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1000일 회향식과 더불어 '2030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 출범식을 함께 병행한다.

10차례에 걸쳐 열리는 대중공사의 주제와 일정도 대략적으로 정해졌다. 1차 대중공사는 내년 1월 28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한국사회 현실과 지역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며, 2차 대중공사는 3월 18일 '조계종 청규, 승가청규와 사부대중 승품 진작(장소 미정)'을 3차 대중공사는 '선거제도, 총무원장 직선제와 종교단체의 구성력과 원심력(장소 미정)'을 주제로 각각 개

최된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부장은 정만 스님은 "한국불교의 현실을 성찰하고 종단의 백년대계를 수립하기 위한 내년도 핵심 사업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2030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는 현재 결사추진본부가 진행 중인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출구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실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은 대중 참여나 사회 영향력 면에서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다. 6월 이후 세월호 기도를 포함하면서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대부분 시기의 정진은 특정 사찰과 신도단체에 국한돼 진행됐다. 이 때문에 정진에 대한 동력이 상실됐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여기에 최근 종단 인팍에서 붓물처럼 터져 나온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한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사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 하며 1000일 정진을 마무리하는 '출구 전략'이 필요했고, '100인 대중공사'로 귀결됐다는 해석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대중공사는 조계종 내부의 비판 목소리에 대한 맞불 작전이다.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바로잡기 보다는 외부로 시선을 돌려 문제를 포장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환부 위에 예쁜 옷만

을 덧 씌워 감추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공사보다는 진실한 자정과 개혁이 요구된다. 결사추진본부가 해야 할 역할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담을 안고 가는 '100인 대중공사'가 산재한 종단 현안에 대한 묘책을 도출하는 회의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결사추진본부는 수차례에 걸쳐 아단법석을 진행해 왔지만, 광의적 주제와 난상토론식 회의 진행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100인 대중공사' 역시 이전의 '아단법석'식 운영 방식을 차용하고 있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승 스님은 "100인 대중공사'는 아단법석뿐만 아니라 2011년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개최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토론회'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면서 "지금 종단과 현 집행부의 상황에서는 대중공사가 아닌 변화에 대한 실제적 결과물들을 통한 '종법' 등을 통해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회의도는 바람직하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을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든다"면서 "대중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만큼 내용과 형식을 보완해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2003년 이후 첫 개성 순례... 재개 기대감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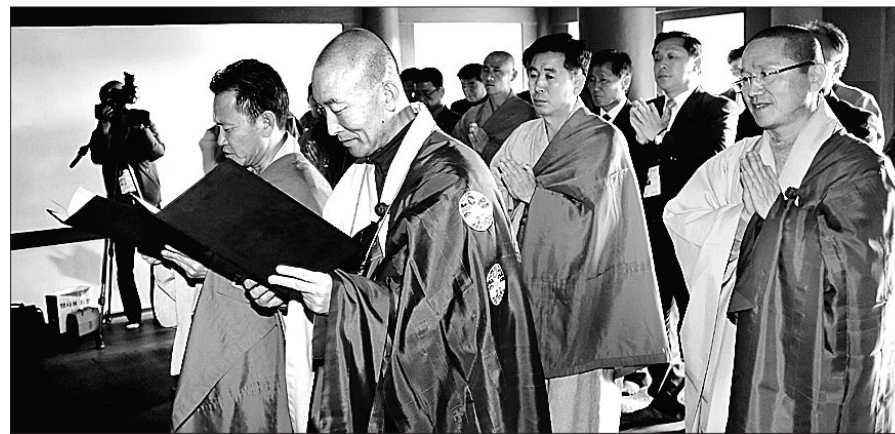
## 천태종·조불련 개성 영통사서 복원 9주년 기념 합동법회

남측 천태종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이 민족 내부의 반목과 불신을 견어내고 평화와 통일 이룩하기 위해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준광)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은 11월 26일 북측 개성 영통사 경선원에서 '영통사 낙성 9주년 기념 및 의천 대각국사 913주기 열반 다례제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양측 불교 대표들은 보광원을 참배한 뒤 대각국사 진영을 봉안한 경선원으로 이동했다. 남북합동법회에는 천태종 사회부장 설혜 스님(단장)을 비롯해 총무부장 월도 스님, 규장부장 용문 스님 등 남측 대표단 30명과 리규봉 조불련 부위원장과 차금철 서기장, 영통사 주지 해명 스님과 정각 스님, 리현숙 전국신도회 부회장 등 북측 대표단 20여 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은 연설에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열반 913주기 다례제와 영통사 복원 9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



천태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은 11월 26일 개성 영통사서서 복원 9주년을 기념하는 합동 법회를 봉행했다.

은 만남은 민족의 단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만남이 보다 더 확장되기를 바란다. 보다 자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통사를 방문하고, 아울러 주변의 다른 사찰과 역사유적들을 순례하는 길도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기원했다.

이어 천태종 규장부장 용문 스님과 조불련 차금철 부장은 참석 대중을 대표해 공동발원문을 낭독했다. 남북 불교도들은 "남과 북의 불교도들은 불심을 모아 남북

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민족내부의 반목과 불신, 긴장과 대결을 견어내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용맹정진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회 후 남·북 불교도들은 관음사와 박연포포, 개성 시내(선죽교, 고려박물관)를 순례했다. 특히 2003년 10월과 11월 영통사 복원 1·2차 지원 이후 끊겼던 관음사 순례와 박연포포 관람이 재개돼 개성 관광과 성지순례의 새 물꼬를 텄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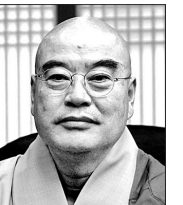
## 쌍계사 신임 주지 정인 스님 임명

### 11월 24일 임명장 수여

쌍계총림 쌍계사 신임 주지에 정인 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 교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인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방장 스님의 추천으로 임명된 것인 만큼 사부대중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포교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정인 스님은 "쌍계사가 천년고찰로서 오랫동안 전통을 잘 지켜온 만큼 새로 주지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총림이 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방장 스님을 위시해서 선방과 대중 스님들을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다. 교구본사나 총무원 정책 수용에도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iinus@hyunbul.com

# 한국 비구니의 청정성 회복과 승가상 확립을 위한 공청회

### ◆ 취지문 ◆

전국비구니회가 발족된 1985년 이래 지금 비구니 승가에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16대 중앙총회 비구니의원 후보 선출과정에서 일어난 운영위원장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독선적이고 파행적인 행위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불만이 발화되어 되었습니다. 이에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은 전국비구니회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단체로 전락하여 더 이상 전체 비구니스님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0월 13일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많은 스님들의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국비구니회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비구니 승가는 더 이상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데에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비구니 역사의 한 획을 그게 될 이번 공청회는 앞으로 전국비구니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 등을 추진하기 위한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공청회에 동참하여 추락한 비구니의 위상을 회복하고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비구니 스님들에 의한 진정한 전국비구니회로 거듭나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불기 2558(2014)년 11월 27일

열린비구니모임(가칭)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 혜운, 행법, 정현, 임대 합장

### ◆ 공청회 주제 ◆

- 주제 ① 열린비구니모임 발족동기와 행보 그리고 향방
- 주제 ② 현 전국비구니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 주제 ③ 한국비구니의 승가상 확립을 위한 대안 모색

일시 ▶ 불기 2558(2014)년 12월 18일 (목요일) 낮 2시  
장소 ▶ 더케이호텔(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 A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2

대상 ▶ 비구니스님만 참석 가능합니다.

주최 ▶ 열린비구니모임을 지지해준 모든 단체 및 사찰

주관 ▶ 열린비구니모임(가칭) 준비위원회 ☎ 02)739-6697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파빌리온 521호

참조 ▶ 비구니 스님들의 동참 서명은 계속 받습니다.

### ■ 오시는 길

- 지하철 3호선 : 3호선 양재역 9번출구 서초구민회관 앞 서틀버스이용 (20분, 40분출발)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매현)역 5번출구 (도보 7분)
- 버 스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마을버스 8번 승차 후 더케이호텔서울 정류장에 하차 (도보 3분)
- 자가용 : 서울 양재IC 이용